

Gary Meadors 박사, 신의 뜻을 아는 것, 세션 7,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 2024 Gary Meadors 및 Ted Hildebrandt

글쎄요, 다시 왔는데, 여러분이 여기 와서 모든 강의를 다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오랫동안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제 슬라이드와 노트가 조금 더 즐겁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글쎄요, GM 7에 왔습니다.

이런 제목을 기억하기는 쉽습니다. 사실, 목차에서 이를 7과 8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7과 8로 나눌 것이고, 이 중 많은 부분이 약간 데자뷰 가 될 것입니다 . 저는 여러분에게 세계관과 가치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탐구하고 조금 더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이 학습의 열쇠이고 다음 두 강의를 여러분을 위해 그것을 해 줄 것입니다.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가치란 무엇인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어디에서 오는가? 어떻게 적용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합니다. 글쎄요, 그게 우리가 여기서 탐구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워드가 이 강의에서 다음에 이것과 함께 할 때는 어떨까요? 좋아요, 7번째 강의, 마음을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 체계로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해 갈 준비가 되었다고 확신 한다면 , 이 강의는 세계관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 때로는 다른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는 하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지만, 지금은 세계관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계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이 문제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즉시 인식론의 범주에 속합니다. 이 기술은 출처의 본질과 지식의 타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특히 이 강의에서 이 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 이야기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고,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믿음을

나누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패러다임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아담과 이브가 거기에 있었고 모든 것이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면에서 타락이 일어났고 타락은 나머지 인간 역사에서 주요 열쇠가 되었고 타락을 설정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일부 고대 작가들은 하나님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은유를 사용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도록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완성을 이룹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성경 이야기를 알았을 겁니다. 시험을 본다면 기억에서 그것을 이끌어내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의 딜레마. 그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데자뷰 죠 , 그렇죠? 우리는 동일한 신의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 타락의 결과로 인한 왜곡, 그리고 우리는 수혜자입니다. 세상이 물리적으로 왜곡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왜곡됩니다. 신학자들이 말하는 타락의 노이에틱 효과가 있습니다 . 그래서 인간은 타락의 왜곡 때문에 신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하고, 당신도 알다시피 도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제공함으로써 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어느 정도 보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와 그 이야기의 타락의 결과는 우리에게 로마서 12:1과 2가 지배적으로 변형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우리는 신을 거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인 회심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정점이며,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이유와 결과로 이 은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조차도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는 실제로 그가 더 많이 이해하기를 기대하셨지만 사실은 그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어머니의 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글쎄요, 거듭난다는 것은 개인으로서의 나에

대한 것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단어는 회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제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것은 사실이며, 그것이 끝난 후에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우리 삶에 들어오시고 기본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런 다음 우리는 변화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 변화의 삶의 핵심은 로마서 12:1과 2입니다. 따라서 세계관을 만들어야 하고, 그런 다음 우리의 세계관에서 나오는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된 세 가지 기본 가정에 대해 먼저 알고 있습니다. 글썄요, 첫 번째 가정은 성경적 서술에 따르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오,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야고보서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든 종류의 장소가 있습니다 . 그리고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하고, 느끼고, 존재하기로 선택하는 분이며, 그분은 우리를 그 면에서 그분을 반영하도록 창조하셨다고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라틴어 *imago dei*가 많이 사용된다고 생각합니다 . 인류 는 인용문이며, 눈에 보이는 육체적 대표자이지 대표가 아니므로 우리 모두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우리는 신처럼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신의 물리적 표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개인적이고 도덕적인 레퍼토리 표현입니다. 거룩하라, 나는 거룩하니라. 우리가 신의 형상임을 보여주라는 부름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육체적 표현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의 육체적 표현은 마치 육신으로 표현된 것을 의미합니다 . 온전한 사람이 표현됩니다. 부분을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사용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더하지만, 사실 우리는 신의 완전한 표상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한 그의 반영이며, 우리는 그의 구원 계획에 참여했을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영할 때, 그의 표상에 따라 변화할 때 가장 잘 반영됩니다. 그는 지상에서 신의 가장 훌륭한 대표자였고, 그는 완벽한 대표자였으며, 우리가 가족이 되면서 우리는 신의 대표자가 되고, 그것은 온전한 사람에 대한 매우 높은 부름입니다. 부분을 분석하지 않는 것은 적절한 예가 아닙니다. 알다시피, 그것은 사용할 수 있고, 여기 GM에서도 사용할 것입니다. 아, 저는 "신의 형상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쓴 클린트라는 친구가 쓴 또 다른 핸드아웃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간단한 기사가 아닙니다.

찾아보면 됩니다. Google Scholar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Google은 좋지만, 정말 조사하고 싶다면 Google Scholar Calm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런 기사나 닉슨에 대한 다른 많은 기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클라인의 기사가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전체 기사를 드릴 수는 없지만 노트에 초록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고객에 따르면 인간 안에 있는 신의 형상은 고급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 해석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내나요? 신에 대한 암시적 증거를 제시하고 질문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의 형상을 갖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그것을 당신에게 읽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사는 그렇지만, 당신은 스스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는지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은 타락하기 전 에덴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들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그들은 창조되었습니다. 아담이 창조되었고, 이브가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담이 창조물을 통제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창조물에서 지배적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 토끼 씨와 부인, 기린 씨와 부인이 있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제정신을 차렸지만, 부인은 어디 있을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에게 적합한 도우미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아담을 균형 있게 했습니다. 여성은 남성을 균형 있게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면에서 다르고, 그 다양성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대표성을 보여줍니다.

여성도 신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결정을 내렸을지 생각해 보세요 . 글썄요, 신은 저녁에 걸으셨습니다. 그는 아담에게 구두로 의사 소통을 하셨고, 우리는 창세기 초반에 발견되는 것 외에는 그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지만, 그는 그들에게 기능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주셨습니다. 그는 그에게 정원을 가꾸어 처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글썄요, 사건의 서술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아직 잡초가 자라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아담은 완벽한 토마토와 오이, 호박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남부인의 식단이고,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남부인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담과 이브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것을 알아내야 했고 그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그에게 한 그루의 나무를 주셨고 흥미로운 것은 그저 느낌의 나무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아내는 나무가 아니라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입니다. 이제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라는 사실의 동산 안에서 매우 상징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지식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담과 이브가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유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본문에서 거의 말하는 바와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위를 하나님의 입장으로 찬탈하고 싶었고 물론 뱀이 사탄에게 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뱀의 형태로 사탄이 그들과 소통했습니다. 그 당시 동산의 모든 뱀이 말을 했다면, 글썄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은 어떤 좋은 목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흥미로운 호기심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탄이 지금 그들을 유혹했고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무료로 제공합니다. 사탄은 언제 타락했고, 이에 대한 제안이 있습니까? 갭 이론이라는 오래된 것이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그것은 스코필드 참조 성경 주석과 지구의 가장 초기 연대의 일부였습니다.

매우 형편없는 설명이었습니다. 창의적인 구성이었습니다. 버려야 할 내용입니다.

저는 사탄이 아담과 이브와 거의 같은 시기에 타락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탄이 신에게 반역했기 때문에, 그는 아담과 이브를 반역으로 몰았습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바로 그 시기에 사탄도 타락했고, 그들은 모두 걷어차여졌고, 사탄은 하늘에서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는 신을 위한 매우 높은 수준의 케루빔이었을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에스겔과 이사야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은 종종 에덴동산에 있던 사탄을 그가 누구인지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시 한번, 저는 이사야 14장에 대한 석사 논문을 썼고, 에스겔 28장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들은 바빌론의 왕들이고, 그것은 사탄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 하에 스스로를 훈련할 것이고, 저는 여러분께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타락하기 전이나 타락한 후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 그러니까, 신의 형상은 중요하고, 아담과 이브는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시점에서 신의 대표자였고, 그래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선택을 시작했고, 그런 다음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것이 세상을 혼돈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성경적 인식론에는 세 가지 기본 가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표자이며 그는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피조물을 선택하고 사물을 통해 추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입니다. 첫째, 두 번째 효과는 타락이고 우리는 타락의 사실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야기해 봅시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성경 텍스트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여러분에게 읽어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들을 읽고 전반적인 서사를 알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서 이것들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들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나무는 그들이 다시 돌아갈 수 없도록 설정되어 보호됩니다. 그들이 다른 사과나 석류 또는 무엇이든 먹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이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것에 접근할 수 없다고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태는 죄 중 하나이며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에 대한 본문이 있으며 로마인조차도 처음부터 아담에서 모세까지 죽음이 통치했다는 것을 숙고합니다. 죽음은 타락의 사실에 대한 큰 증거이며 모든 것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의 정원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는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가지고 있었고 그는 존재하기 위해 이마의 땀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세상 자체, 물리적 세계는 심지어 아담과 이브의 죄의 저주에 참여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가 많고 그것이 무엇인지 보려고 호기심을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자들의 상태 시편 51편 5절 보라 내가 태어났고 공평하게 형상을 이루었노라 이제 자궁 속에 아이가 결정을 내리지 않는 아이는 인간의 태아입니다. 제 생각에는 임신 때부터, 특히 자궁벽에 착상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법의학적으로 임대를 위한 일자리가 있습니다. 임대를 위한 일자리는 합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법적으로 죄인으로 선언되었습니다. 죄인은 창조주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 즉 인간적 상태에 대한 이름과 범주일 뿐입니다. 신자들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규정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나옵니다. 저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저는 그녀보다 10살 더 많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잘못된 일을 하도록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미 해군에 입대하기 전 어린 시절에 그녀가 자라면서, 그녀는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일을 합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바로잡힐 때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뿐입니다. 신자의 상태에 대한 온갖 종류의 텍스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에 날카로워졌고 죄로 형성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은 어둠에 대한 장황한 설명입니다.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한 결과이고, 우리는 인간으로서 같은 반역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창의적인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직접적인 텍스트가 없지만, 아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할 수 있는 삶의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그리고 그 결정은 모든 사람이 기독교 문화에서 태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복잡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들에 대해 듣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교훈이에요. 태어나지 않은 아이와 태어난 아이, 그리고 그들이 책임 연령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일련의 비디오인데, 만약 그것이 유효한 크릭의 구성이라면요. 오, 그걸 추적할 수 있을 거예요. 각 교파는 말하자면 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장로교는 영아 세례를 가지고 있어요. 세례가 부모의 신앙 아래 있는 아이를 보호한다고 한다면, 그 아이가 부모가 예수님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이끄는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요. 글썄요, 그건 다른 주제지만, 우리의 상태는 형편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될 수 있는 만큼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는 히틀러, 무솔리니, 우리 세상의 모든 끔찍한 사람들, 스탈린, 그리고 다양한 문화권의 자기애적 살인자였던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다릅니다. 적어도,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될 수 있는 만큼 나쁘지는 않지만, 우리는 가능한 한 나쁜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까지 우리는 가능한 한 나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덩어리 범주 용어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반하여 범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 하므로 그분께 순종할 실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더 나은 사람인 많은 죄인을 압니다. 안전하지 않은 사람들. 나는 일부 기독교인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안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부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완벽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중 일부는 꽤 나쁩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시점에 그런 범주에 속해 있었지만, 구원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바라건대 우리를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자신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우리는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멀리하기 위해 온갖 방어수단을 사용하는 생물입니다. 우리는 조종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우리는 정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하면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과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핵심적으로 죄인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인간의 상태, 타락의 영향은 최종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하실 때 지금 다시 한번 데자뷰 하나님을 아는 딜레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그 왜곡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적인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똑똑하고 어떤 면에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희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하늘 아래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가져올 이름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사역 이제 성경적 인식론 세 번째 가정 세 번째 가정은 하나님의 인식론입니다. 타락한 세상에 대한 조항과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로 돌아갑니다. 이 슬라이드에는 아마도 카이저 기사의 참고 문헌을 넣을 것입니다. 어딘가에 자료가 있고 여러분이 사본을 받을 때 여기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리에 앉은 것에서 지금은 그 단계이지만 하나님의 인식론적 공급은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주심으로써 왜곡을 극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 매우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며, 받아쓰기 문제는 자주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몇 군데 있긴 하지만, 그것은 선지자와 사도들의 삶 속에서 성령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계시를 암호화했을까요?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제품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전체 제품이 있기 때문에 더 축복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들이 예수님이 무엇이 될지, 무엇을 할 것인지 미래를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조차도 바울이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몇

가지를 썼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조차도 때때로 성경에 당황했습니다. 그는 다른 성경에서 매우 흥미로운 성경 본문인 우리 형제 바울이 말했다. 그리고 여기 그 문화권에서 살았던 사도가 바울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걸려 넘어지고 바울이 말한 것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도전을 받았다면 저는 당신에게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행된 성경에서 매우 부지런해야 합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2장에 대한 강의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여기에 기사를 실어 놓을 테니, 여러분이 직접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 월터 카이저의 영감과 성경에 관한 기사보다 더 나은 진술은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저널에 실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슬라이드를 받으면 슬라이드에 실어 놓겠습니다. 글썄요, 다시 그 내용으로 돌아가보죠. 물론, 여러분은 지금쯤은 지쳤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지쳤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꿈에서 그것을 봅니다. 좋아요, 꿈은 하루의 바쁜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는 당신의 꿈을 침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관이란 무엇일까요? 글썄요, 세계관은 개념적 체계입니다. 그것은 개념적 체계입니다. 그것은 렌즈입니다. 이 안경은 렌즈이고, 어떤 사람들은 One Live, 장로교 렌즈, 거룩함 렌즈를 착용합니다. 성경은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명령하신 다양성의 일부이며, 그가 그렇게 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렌즈를 가지고 있고, 세계관은 우리의 렌즈입니다.

그것은 정신적 틀이자 개념적 체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본문에 도달할 때, 우리는 항상 그 렌즈를 끼고 본문을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렌즈를 이해하기 위해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들의 렌즈와 그들의 창조적인 구성물 뒤로 돌아가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가? 저는 학자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있습니다. 저는 신학을 많이 하지만 신학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신학은 방대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성경을 연구하려고 할 뿐이고,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므로 본문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대로 다루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에 대한 문맥화를 하고 그것만으로도 우리 모두를 바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여기서 다시, 당신은 평신도로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위해 할 수 없는 일을 좋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글썄요, 그것이 당신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당신은 최선을 다합니다. 당신은 이 강의를 듣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다시 듣고, 당신은 평생 동안의 과정으로서 성장합니다. 우리는 평생 학습자여야 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대한 평생 호기심을 가져야 하므로 우리가 일해야 할 렌즈에서 다양성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계를 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공통된 지식이 많지만, 여전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전제와 신념을 인식하고 우리 삶에 적용합니다.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은 공통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출처에서 온 우리의 세계관의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세계관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지금.

세계관은 무엇을 담고 있을까? 우리의 세계관은 어떻게 우리 자신에 대한 해석에 초점을 맞출까?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은 현실에 대해 무엇을 나타낼까? 나는 그것이 신의 많은 칙령이며 그는 다양성을 칙령했고, 우리는 답이 없지만, 답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신에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암시했습니다. 그럼, 세계관의 구성 요소는 무엇일까? 답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존재론이라고 합니다. B로서 내가 되는 것? 글썄요, 나는 신의 형상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대표자입니다. 그의 대표가 아니라 그의

대표자입니다. 그는 나를 거룩하게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에게 순종하라고 부르셨습니다 . 그는 나에게 많은 것들을 부르셨고, 나는 그러면 나는 열 번을 살아도 결코 이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추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로부터 이 세상에서 그의 뜻을 이루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알까요? 인식론입니다. 글썄요,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우리 모두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엔지니어가 있고, 교사 가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 있도록 자동차와 버스를 수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의 몸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의미 있는 자리를 갖고 있으며, 정원에서 일하고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교사가 되는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그 일에 바칠 수 있도록 부르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해, 우리는 여러분이 그것을 활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지식은 성장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몇 가지 기본 사항을 알고 있으며, 그 기본 사항은 하나님께서 그의 일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의 삶을 풀어내고 지금까지만 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문에 답할 패러다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여러분을 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럼 존재론? 인식론 공리론 *Axios*는 가치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사실, 공리론은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수행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글썄, 당신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많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부름이다.

우리의 부름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성경을 성취하는 것이고, 저는 거기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언약의 일부로서 사랑의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죠?이제 다시 이 주제로 돌아가죠. 음, 여러분은 이게 싫증날 겁니다. 음, 하지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림을 그려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그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를 바라지만, 제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여러분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변화되고 있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면서 다른 것들을 배우면서 수정될 것입니다. 작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이 통치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악의 모양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킹 제임스 번역으로 모든 악의 모양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구절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조종하여 그들의 생각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지렛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을 제공하는 레스토랑에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악의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모든 악의 부모를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신이 그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에서 좋은 식사를 하러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증거 구절이 되었습니다. 오, 그리고 야구 경기를 보러 가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무엇이든.

그 구절이 지렛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은 번역이 나와서 그것을 번역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제임스 왕이 우리에게 연관으로 인한 죄책감이라고 알려진 것을 만들어내는 무언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악의 모습을 피하십시오. 그 구절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구절의 축은 실제로 모든 종류 의 악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모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지금은 모든 종류의 악을 피하십시오. 그것은 노볼게임입니다. 연관으로 인한 죄책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모습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종류를 정의하는 것에 대한 것이고, 그 정의를 어디서 얻었는지 추측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텍스트 자체에서 나온 것이므로 할 일이 많습니다. 변형은 합리적인 과정이며, 저는 변형이 성경적 가르침에 기초한 합리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글썄요, 당신은 신앙생활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아침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신앙적으로 읽는 것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당신의 세계관, 가치관, 성경에 대한 이해가 당신을 성경이 말하는 내용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당신의 헌신이 정확할 것입니다. 헌신 자체는 훌륭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성경을 읽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헌신은 성경에서 외삽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15분 동안 성경을 읽고, 낮에 외출하고, 읽은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대한 무언가를 설명하는 기사를 찾을 수 있는 성경 사전을 읽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을 읽고 거기에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한 권짜리 사전을 꺼내 보세요. Erdman's Dictionary of the Bible은 훌륭한 한 권짜리 사전인데, 어떻게 될까요?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배우면 더 잘 헌신하게 됩니다. 헌신의 주관성은 많은 사람을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상력이 그 헌신의 순간에 대한 유일한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순종하는지에 대한 생각 과정을 우회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은 헌신에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당신은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말할 것입니다. 글쎄요, 죄송하지만, 나중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이 무엇을 하시고 하지 않으시는지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비난해 왔고, 실제로 그것이 우리 자신의 문제일 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비난해 왔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따른 변형은 당신의 마음을 바꾸어 그 세계관과 가치 체계를 통합하고 개발함으로써 변형되는 합리적인 과정입니다. 게다가, 여기 제 학생이 저를 위해 그린 작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데이트한 공로가 어딘가에 있지만, 이것은 제가 그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의 변형입니다. 당신은 영원한 과거의 원 안에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인간 대표자들에게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신을 드러내며, 대표자들이 아니라 대표자들입니다.

영어: 거기에 우리가 있고 사도들은 고린도전서 2:6~16에서 계시를 암호화했고 그런 다음 그것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는 순종하고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종합하는 데 의존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즐길 것이라고 생각한 또 다른 변형 또는 차트일 뿐입니다. 좋아요, 우리는 이것을 전에 보았지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세계관은 교육, 건강 관리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저는 항상 교육 홈스쿨링 공립학교에 대해 약간 알아보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한 증거 본문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성경은 자신이 승인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공부하는 것 외에 학교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성경 구절을 목에 걸고 다니세요. 성경을 암기하세요. 내 마음속에 숨긴 말씀은 내 마음입니다. 마음은 내 마음입니다. 그러면 낮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그것이 지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꽤 감동적인 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아직 쿠데타는 없었지만 사실 미국에서는 매우 무너지고 질질 끌려간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에게 어떻게 투표합니까? 글쎄요, 기독교인들은 낙태에 반대하는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고 말할 겁니다. 글쎄요,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 중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지만, 규칙을 가진 사람에 대해 그보다 더 많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이며 가장 끔찍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이 이러한 질문에 직면하게 되는 온갖 문제가 있지만, 모두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에 대한 이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원하는 것을 얻지는 못하고, 마치 우리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결정적 기능에 안주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몇 가지를 볼 수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몇 가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예와 그들의 결정에 대해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세계관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롯은 동등한 지식에 참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신 것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롯의 물리적 맥락에서 신이 계시된 사람이었고, 밤에 불 주변에서 구전으로 전해진 것 같습니다. 구전은 그 시기에 신이 전하는 수단의 기초였습니다. 창세기 17장과 19장을 살펴보고, 롯이 어떻게 위반하는지 살펴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메시지는 그 시기에 신이 소돔과 고모라를 좋은 도시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나온 모자이크 정보를 위반했지만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것이 그들이 잘 지내기에 충분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고, 성경은 창세기의 부정적인 서사에서 롯이 나쁜 곳이라는 것을 매우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것은 여러 면에서 하나님을 위반한 곳이었습니다. 알다시피, 당신은 계속해서 그것을 읽고 롯이 가축과 풀을 위해 도시에 있는 것을 어떻게 포기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그의 자녀들에게 일어난 일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성문은 정치적 권력의 장소였습니다. 그는 재판관이었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10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롯에 대해 많은 것을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울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사울 왕은 신자였습니까? 그것은 놀랍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얼마나 많은 논문이 쓰여졌습니까? 글썄요, 베드로가 없었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롯에 대해 더 많은 논문을 썼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없었다면 롯에 대한 논문을 더 많이 썼을 것입니다. 2장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흑암의 그늘에 두어 심판 때까지 보존하셨더라면 불경건한 자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를 재로 만들어서 멸망으로 정죄하신 것은 불경건한 자들에게 일어날 일의 본보기를 보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칙을 어긴 자들에게는 아직 기록되지도 않았고, 그가 여기서 구원하셨다면, 저는 이것을 당신에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의로운 자들. 잠깐만요. 그러면 당신은 깨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롯을 의롭다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는 딸들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가 도시를 떠난 후 모압과 하몬드가 태어났고,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나머지 기간 동안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가 악한 자들의 관능적인 행위로 크게 괴로움을 받는 의로운 자들을 구했다면, 창세기를 읽으면 그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방문한 천사들에게 딸들을 내주기보다는 성적으로 음탕한 사람들에게 딸들을 내주었고, 그는 그 의로운 사람이 날마다 그들 사이에서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사악한 사고방식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의로운 영혼을 괴롭혔습니다. 이 맥락에서 의롭다는 것은 그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 역사의 성경에서 이 초기 단계 예요 . 이것은 모세가 같은 장면에 등장하기 전까지는 기록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피아의 통제 하에 있는 판사에게는 끔찍한 곳입니다. 그는 그 도시의 가치에 따라 판단을 내려야 할 때마다 그 위반으로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깊이 고문했습니다. 그 도시에서의 삶의 결과는 그의 가족에게, 사위들에게, 그가 잃은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녀는 파괴를 돌아보며 마음과 삶에서 당신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 가족에게, 제 집에게, 제 물건에게 이런 일을 한 것에 대해 당신을 미워한다고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녀는 엿보지 않고 뒤돌아보았지만 분노하며 뒤돌아보았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녀를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와 관련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치에 대해 설교할 것이 많습니다. 제 설교 제목은 끔찍한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끔찍한 삶을 사는 방법, 옳은 것을 알면서도 그른 것을 행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거부함으로써 어떻게 끔찍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들 당신이 기독교인이고 당신이 가진 가치관을 부인했다면 당신이 그것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든 당신은 나쁘게 느낄 것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확신입니다. 사실, 그것은 당신의 양심의 확신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의미에서 영의 확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영의 역할입니다. 영의 역할은 확신입니다. 영의 역할은 당신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역할은 당신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역할은 당신에게 세계관에 대해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세계관과 가치관, 그리고 일은 로마서 12:1과 2의 맥락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의 가치관은 성장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많이 성장했고 내리막길을 걸었고, 그들의 의지적 선택, 그들의 의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발전시킨 도덕적 발전과 롯이 잘못된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그것은 가치관에 대한 놀라운 그림이며, 그것을 어기는 것이 비참한 삶을 사는 것과 같은 비참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많은 것을 읽고 그를 본보기로 따라가면, 특히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것으로 쉽게 지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신념을 기르기 전까지는 확신을 가질 것입니다. 당신은 비참한 사람이 될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로부터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의하세요: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 스스로 권위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것들을 검증해야 하며, 그것은 전체 교회 의 일입니다 .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전체 교회에서 그것들과 함께 하는 공동체의 일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스테반의 질책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세계관에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에 대해 기분이 좋았습니다 . 심지어 그들이 죽는 것을 보는 것조차도요 .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봉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당시 위대한 교사들 중 한 명에게서 공부한 이스라엘의 교사로서 매우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예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의 머리를 때리시며 "들어라, 바울아"라고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당신은 바로 내려와야 하고, 그는 바로 내려놓았고, 바울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세요. 바울은 신약의 대부분을 쓰지 않았습니다 . 그는 신약에서 가장 많은 항목을 썼지만, 누가는 실제로 대부분을 썼습니다. 누가와 사도행전은 방대한 양입니다. 누가의 멘토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를 박해했을 때, 그는 자신의 세계관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스티븐 스톤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예수님 이전에는 옳지 않았지만, 이제는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폴은 자신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너무 충실했기 때문에 신이 개입해야 했고, 폴은 변화를 만들었고, 우리는 그 결과를 봅니다. 자신을 알아라. 아시다시피, 우리 대부분은 자기 자신 밖에서 서서 자신의 행동을 살펴볼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 자신을 대하는 방식, 가족을 대하는 방식 등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에게 눈이 멀기도 합니다. 신앙심이 없는 시인 소로는 "성찰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비참한 사람들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삶을 조종해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신도 조종해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그는 항상 거기에 인내심 있게 앉아서 그들이 자신을 알 수 있도록 그를 알기를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다는 인식을 유지하는 데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삶에서 내리는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것입니다. 좋아요, 글쎄요, GM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맞는 번호를 받았는지 확인하십니까? 오, 글쎄요, 저는 너무 많은 페이지를 마쳤고, GM 7,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 노트에 있는 그 핸드아웃을 주었는데, 제가 다루지 않았지만요. 우리는 세계관과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로 세계관과 그것이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수업인 GM 8에서는 다음 수업은 우리의 세계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는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이것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루를 보내면서 축복하시기를 믿습니다.